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이용 개발연구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trengths Scale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박정임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ung-Im Park(strjung@seoil.ac.kr)

요약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의 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이용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척도개발을 위해서 첫째, 문헌연구와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포커스그룹면접을 통해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2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 교수와 2명의 현장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쳐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최종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종예비문항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6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552개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478부를 최종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요인 1은 직업, 요인 2는 가족·사회적 지지, 요인 3은 낙관성, 요인 4는 자원활용, 요인 5는 대처행동, 요인 6은 여가, 요인 7은 건강으로 선정되었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40문항의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이용을 개발하였으며, 본 척도의 국내 정신보건사회복지이론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이용 | 정신장애인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Strengths Scale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The first step taken to develop the scale was to construct sample items for the Strengths Scale using literature research a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Secondly, two professors of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a University and two mental social workers reviewed these sample items to select and compile a final version of the scale. Lastly, the scale's reliability and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an empirical study of 478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who conduct the survey items. The explanatory factor was that the sample items can be grouped into seven factors. Factor 1 was 'Vocation', Factor 2 was 'Family and Social Support', Factor 3 was 'Optimism', Factor 4 was 'Resources Utilization', Factor 5 was 'Coping Behavior', Factor 6 was 'Leisure', Factor 7 was 'Health'. The Confirmatory analysis showed that the model demonstrated a goodness-of-fit. Finally, the Korean Version of Strengths Scale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was developed consisting 40 items and was proposed a mental health social work implications.

■ keyword : | Korean Version of Strengths Scale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3852)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23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8일

교신저자 : 박정임, e-mail : strjung@seoil.ac.k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의 강점과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이 주요한 회복의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다[1]. 이러한 당사자 스스로의 회복패러다임에서는 여러 가지 회복과 관련된 개인적·환경적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강점과 잠재력, 역량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최대화하기 위한 “강점중심의 실천”은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궁극적인 회복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3].

강점중심의 실천이 정신장애인의 회복 등을 위해서 강조되어 온 것에는 강점관점의 실천원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원리로써 강조되어 온 측면도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강점의 활용과 강화가 정신장애인의 삶과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강점중심의 실천 중의 하나인 강점모델(The Strengths Model)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입원률 감소, 사회적 기능, 일상생활능력, 단기목표달성, 자기효능감, 취업률, 삶의 질 등 회복에 실증적인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3][4],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사정과 실천은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회복 등에 실증적인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있어서 강점중심의 실천이 이와 같이 효과성과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중심의 실천은 국내외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6-8]. 여러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중심의 실천이 확대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강점중심의 실천은 강점관련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화와 조작화하기 힘들어서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과연 강점중심의 실천이 다른 개입들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측면에서 특별히 효과적인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아직까지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6-8].

또한, 외국의 강점이론과 강점모델의 연구자들은 아

직까지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직들이 정신장애인들의 강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문제중심의 사정과 도구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점중심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바뀌어야 할 실천과업 중의 하나는 “강점사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 이러한 점들은 국내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실천분야에 주는 함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의 정신보건분야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신장애인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문제중심의 도구나 척도 등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을 사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0].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실천현장에서 정신장애인들에게 문제중심의 도구나 척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강점에 대한 정의나 의미부여가 제각각이고 교육이나 수련을 통해서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병리적 접근에 익숙해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9]. 더욱이, 대부분의 정신보건기관에서 정신의학적 진단, 병리나 문제 중심의 전통적 사정과 기록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점사정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10]. 국내의 정신보건 관련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강점을 강조해왔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강점사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을 뿐 실제적으로 이들의 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나 관련 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의 강점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7]. 외국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문화적, 개념적 동등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외국 척도의 문항들은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데 타당성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중심의 실천과 강점사정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써, 국내외의 강점관련이론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강점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포커스그룹방법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관점과 한국적 문화 및 상황에 적합한 한국판강점척도-정신장애이용을 개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형강점척도-정신장애 인용에서 강점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점척도의 예비문항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에서 도출한 예비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에서 분석한 예비문항의 확인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공인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1. 정신장애인의 강점의 개념과 구성요소

정신장애인의 강점에 대해서는 1980년대 초부터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이론과 강점모델을 개발하고 확장시킨 Rapp과 Chamberlin 등(2006)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3]. Rapp 등(2006)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회복서비스들이 문제중심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중심실천에서 벗어나 강점중심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점중심실천의 사례관리로 개발된 강점모델에서 정신장애인의 강점이란 '정신장애인이 전반적인 삶에서의 회복(정신장애인이 주거, 교육, 직업, 사회적 관계, 레크레이션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영역에서 삶의 만족과 질이 향상되는 것)을 위해서 개인적인 강점(열망, 능력, 확신)과 환경적인 강점(자원, 사회적 관계, 기회)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것'이라 하였다. 개인적인 강점으로써 '열망'은 구체적이고 성장·성취지향적인 목표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능력'은 어떤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인식하고 성취물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신'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 희망, 자기감, 자기통제력, 자신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목적 지향적인 것,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환경적인 강점으로써 '자원'은 돈, 소유물, 보상 등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사람,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고 '기회'란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환경적 자원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정신장애인들이 낙인화하지 않는 환

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강점이론과 강점 모델은 정신장애인의 입원율, 삶의 질, 단기목표달성, 일상생활능력, 사회적 지지 등에 실증적인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Rapp 등(2006)의 강점모델과 강점사정은 국내에서는 박정임(2002)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박정임(2002)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강점이란 6가지 일상생활영역인 주거, 재정, 직업 및 교육, 사회적·영적 지지, 여가 영역에서 과거의 역사, 현재의 상태, 미래의 열망을 바탕으로 개인과 환경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강점관점 사례관리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 단기목표달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4].

한편, 다른 연구자로서 Snyder 등(2006)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정도구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진단 및 편람체계)의 축은 문제중심 사정도구이며, 강점사정을 위해서는 축 VI의 항목으로 '강점 및 자원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강점의 구성요소로써 애착/사랑/양육, 유대감/공감적 관계, 이용 가능한 교육적 기회와 지원, 의미있는 일/직업만족/자기효능감, 건강한 발달을 돕는 필수 요소를 갖춘 안전한 집, 기본 욕구와 다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질 좋고 신뢰할 만한 건강관리 서비스, 자원과 시간의 기부를 통한 사회기여, 기타 심리사회적, 환경적 자원 등을 제시하였다[18].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들을 시행하여 강점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었다. Lehner(2004)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강점이란 '삶에 대한 대처와 지지의 사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지지와 도움들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 삶의 질,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19]. Hultman 등(1997)도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강점이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대처'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대처는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이후에 재발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였다[20]. Boschi 등(2000)도 정신분열병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강점은 '적극적인 대처'이고 정신장애인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증상이 적고 기능이 더 좋다고 제시하였다[21].

이밖에도 Cowger 등(1994)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개인적 강점과 환경적 강점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강점은 심리적 강점(인지, 정서, 동기, 대처, 대인관계)과 신체적, 생리적 강점으로 구성되고 환경적 강점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강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13]. McQuaide(1997)도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란 인지기술, 대처 및 방어 메카니즘, 기질적인 성격적 요인, 대인관계기술과 지지, 외적 요인(사회기관이용능력, 재정자원, 지지적 친구와 가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14].

이러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강점이란 정신장애인들이 '전반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개인의 강점과 환경의 강점인 능력, 자원, 대처방법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 측정도구

현재까지 정신장애인의 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양적 측정도구들은 [표 1]과 같다. 먼저 Rapp 등(2006)은 강점모델을 개발하면서 강점사정방법을 제시하였다[3]. 이 강점사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강점모델인 강점중심 사례관리를 적용하면서 활용된다. 여기에서 강점은 일상생활영역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휘되는 개념으로써, 강점의 구성요인으로는 7가지 일상생활영역인 주거, 재정, 교육 및 직업, 사회적 지지, 건강, 여가, 여성 등에서 정신장애인의 과거 역사, 현재 상태, 미래의 열망을 탐색해나가는 것이다. 이 강점사정은 임상가와 정신장애인이 7가지의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강점사정질문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 현재의 상태, 미래의 열망을 대화식으로 사정하게 된다. 이 강점사정방법은 Barry 등(2003)의 연구 등 11개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3].

Kisthardt(2005)도 강점이론과 강점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중심 강점사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8개의 일상생활영역(주거, 교통, 재정, 직업 및 교육, 사회적 지지 및 영성, 건강, 여가시간)으로 구성하고 강점사정은 이 영역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열망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17].

McQuaide & Ehrenreich(1997)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다섯 가지 영역인 인지기술, 대처 및 방어 메카니즘, 기질적 · 성격적 요인, 대인관계기술과 지지, 외적 요인 등으로 구성하고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강점자가 척도 38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척도를 3명의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14]. 그러나, 위와 같이 질적 방법에 의한 척도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객관적인 척도로써는 한계가 있었다.

Wallace 등(2001)은 정신장애인의 강점을 6가지 영역인 삶의 목적, 현재 기능, 약물관리, 치료서비스의 질, 증상, 지역사회행동으로 구성된 자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질문과 예, 아니오, 4점 척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22]. 이 척도는 Lecomte 등 4개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23].

Lyons 등(1999)은 정신장애인의 강점을 13가지 영역인 가족, 사회적 연계성, 낙관성, 재능 및 관심, 교육, 자원봉사, 직업력, 영적 신념, 지역사회연계, 적응유연성, 자연적 지지, 적응유연성, 자원확보성 등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가가 0점부터 3점까지 영역별로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도 검증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개발대상자가 입원한 정신장애인이었고 척도개발자들도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23].

Nelson과 Johnson (2008)은 Lyons 등(1999)이 개발한 강점척도를 6가지 영역인 정신과 증상, 충동관리문제, 우울 및 불안증상, 반사회성 행동, 물질남용문제 등으로 축약하여 구성하고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도 입원한 정신장애인을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24].

표 1. 정신장애인의 강점측정도구

연구자	강점 구성요인	주요 특징	활용 연구
1. Rapp 등(2006) Strength Assessment Worksheet	7가지 일상생활영역인 주거, 재정, 교육 및 직업, 사회적 지지, 건강, 여가, 영성에서 과거 역사, 현재 상태, 미래의 열망	-7개의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강점사정질문이 활용됨 -임상가와 정신장애인의 대화식 강점사정	Barry 등(2003) 11개의 연구
2. Kisthardt (2005) *Person-Centred Strengths Assessment	8개의 일상생활영역인 주거, 교통, 재정, 직업 및 교육, 사회적 지지 및 영성, 건강, 여가시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열망	-8개의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강점사정질문이 활용됨 -임상가와 정신장애인의 대화식 강점사정	
3. McQuaide 등 (1997) Strengths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5가지 영역: 인지기술/대처 및 방어메카니즘/기질적·성격적 요인/대인관계기술과 지지/외적 요인	-자가척도 38문항 -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 -타당도 검증 안됨	McQuaide 등 (1997) 연구
4. Wallace 등(2001) Client's Assessment of Strengths	6가지 영역: 삶의 목적/현재 기능/약물 관리/치료서비스의 질/증상/지역사회 행동	-개방형 질문과 예, 아니오, 4점 척도 등으로 구성, 자가척도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됨	Lecomte (2008) 등 4개의 연구
5. Lyons & Anderson(1999) Adult Needs and Strengths Assessment	13가지 영역: 가족/사회적연계성/낙관성/재능 관심/교육/자원봉사/직업력/영적 신념/지역사회연계/적응유연성/자연적 지지/적응유연성/자원 확보성	-임상가가 0점부터 3점까지 영역별로 채점을 함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됨	Nelson & Johnson (1999)의 연구
9. Nelson & Johnson(2008) Adult Needs and Strengths Assessment -abbreviated	6가지 영역: 정신과 증상/충동관리문제, 우울/불안 증상/반사회성 행동문제/물질남용문제	-Lyons 등(1999)이 개발한 척도를 16문항으로 축소함 -신뢰도 검증됨	Nelson & Johnson (1999)의 연구

III.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 척도개발과정

첫째, 1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강점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문헌검토와 정신장애인 대상 포커스그룹면접을 실시하였다. 문헌검토와 포커스

그룹면접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제시한 강점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예비문항으로 만들고, 이와 함께 관련문헌을 통해 검토한 강점척도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여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을 구성한 후에는 전문가(정신보건사회복지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및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2단계에서는 예비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셋째, 3단계에서는 실증적 조사연구의 결과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공인타당도를 평가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Cronbach' alpha 값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총 552명의 표본 수에서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478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헌검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신장애인 강점의 개념과 구성요소, 강점척도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존의 문헌이나 척도에서 활용된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척도의 구성요소는 '일상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재정, 교육 및 직업(직업력), 건강, 여가, 영성(영적 신념), 교통 등과 '인지·심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삶의 목적, 현재 기능, 인지기술, 대처 및 방어메카니즘, 낙관성, 재능 및 관심, 적응유연성, 기질적·성격적 요인 등이 있었다. '정신질환증상 및 치료서비스 이용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요인은 약물관리, 치료서비스의 질, 증상, 충동관리문제, 우울 및 불안증상, 반사회성 행동문제, 물질남용문제가 있

었으며, ‘지역사회자원활용·환경 영역’으로는 사회적 지지(자연적 지지, 지역사회행동, 영성(영적 신념), 자원봉사, 지역사회연계, 사회적 연계성, 자원확보성, 외적(환경적)요인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문헌검토를 토대로 하여 강점척도의 예비문항의 구성요소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2. 정신장애인 대상 포커스그룹면접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강점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면접을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면접은 집단면접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척도 개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26]. 포커스 그룹면접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6-10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들의 추천으로 포커스그룹면접의 참여를 원하는 정신장애인들을 1차 8명, 2차 6명, 3차 6명씩 총 3회의 포커스그룹 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면접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첫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구두로 설명하였고 둘째,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참여를 한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셋째, 녹음과 비밀보장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넷째,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참여동의서를 읽고 동의 의사를 분명히 한 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면접의 질문내용은 주로 ‘정신장애인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강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진행자가 좀 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예나 설명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모든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연구자와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함께 내용 분석을 하였다. 강점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였고 구성요소를 명명하였다. 포커스그룹면접에서 파악된 한국 내 정신장애인 특성과 이들이 제시한 정신장애인 강점의 구성요소들은 [표 2]과 같다. 이

러한 구성요소들은 문헌검토내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2. 포커스그룹면접: 정신장애인의 강점

영역	구성요소	내용
일상 생활 영역	직업	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일을 한다 면 끝까지 할 수 있다. 나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프로그램 등에 잘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하는 도중에 다소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다. 나는 지 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취업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나는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한다 나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센터에 참여한다.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계획도 있다
	여가·활용	나는 종종 취미생활을 한다. 여가시간을 계획을 세워 서 잘 보낸다. 외출을 잘 한다.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혼자서도 영화나 공연 등을 보러가거나 놀러 다닌다.
정신 질환치 료 및 서비스 이용영 역	건강 관리	스스로 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 나 스스로 내 증상을 잘 알고 있으며 잘 관리할 수 있다. 운동, 식사 등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식사를 잘 챙겨먹고 노력을 한다.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자 한다. 증상이나 힘들고 상담받고 싶을 때 주치의나 사회복지사 선생 님에게 상담을 한다
지역사 회자원 활용 영역	가족· 사회복지 지	나는 주변사람들과 모임이 있으면 되도록 참석하고자 하고 참석을 좋아한다. 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 등으로 도움을 주 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인정해준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간 을 보내는 것이 좋다.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 가족 이나 주변사람들과 잘 지낸다. 가족과 함께 종종 여가 시간을 보낸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일상 생활 자원 활용	대중교통을 잘 이용한다. 혼자서 병원이나 필요한 곳 을 잘 다닌다. 필요한 물건을 혼자서도 잘 쇼핑하러 다닌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외식도 가끔 한다.
인사· 심리적 영역	삶에 대한 대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 어 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항상 노력한 다. 병을 앓고 나서 오히려 좋아진 면도 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 나는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할 때 신중하려고 애쓴다. 겸손하려고 애쓴다. 이해심도 많아졌다. 살아가는 목적과 꿈이 있으며, 노력해서 달 성하고 싶다.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 이 정도도 다행 이다. 지적을 받더라도 웃으면서 신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더라도 잘 받아들인다. 친구들과 대화 도 많고 이해하려고 애쓴다. 어디에서든 다른 사 람들의 결정을 잘 따른다. 힘들 때에는 교회에 가거나 기도를 한다. 친구들에게 내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4. 예비문항개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파악된 정신장애 인 강점의 개념 및 구성 요소들과 3차에 걸친 포커스그 룹면접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제시한 강점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점의 구성요소는 6개의 구성요소로써 직업·교육(11문항), 가

죽·사회적 지지(12문항), 건강(10문항), 일상생활자원활용(10문항), 여가(6문항), 삶의 적극적 대처(14문항)로 구성하였다. 이를 정신보건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및 현장실무자(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으며, 문항이 유사하거나 어색한 문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5문항)하고 최종 58문항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5. 요인분석 및 타당도,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예비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전국 298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중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조에 동의한 기관들에게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편 조사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협조하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시행되었다. 즉, 선정기준은 첫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하며, 둘째, 진단명은 전문의로부터 정신장애(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등)를 진단받은 정신장애인으로써 정신장애의 진단명은 제한이 없으나, 지적장애와 인격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구두로 설명하고 둘째,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참여를 한다는 설명을 하며 셋째, 반드시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넷째,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안내문을 설문지 앞에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문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읽고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6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552개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478개가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59.2%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장애등록에서는 등록이 78.5%이었으며,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81.2%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교 중퇴 및 졸업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상태는 가족과 거주가 56.9%로 가장 많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8)

특성	명		%		특성	명		%	
	성별	명	%	성별		명	%		
성별	남성	283	59.2	결혼여부	미혼	388	81.2		
	여성	195	40.8		기혼	24	5.0		
					이혼	37	8.0		
					사별 등 기타	29	6.1		
연령	10대	1	0.2	교육수준	초중퇴•졸	15	3.1		
	20대	73	15.3		중중퇴•졸	24	5.0		
	30대	136	28.5		고중퇴•졸	225	47.1		
	40대	153	32.0		대중퇴•졸	179	37.4		
	50대 이상	115	24.1		대학원이상	35	7.3		
장애등록	등록	375	78.5	주거상태	가족거주	272	56.9		
	미등록	103	21.5		혼자거주	54	11.3		
					주거시설	117	24.5		
					기타	35	7.3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였고 추정방법은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시 문항선정을 위해서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 공통성이 .40이상, 요인적재량이 .40이상이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중에서 공통성이 .40이하, 요인적재량이 .40이하인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7번, 12번, 13번, 14번, 15번, 19번, 21번, 24번, 25번, 27번, 32번, 33번, 36번, 42번, 51번, 56번, 57번, 58번 등 18문항을 제외)한 4차 요인분석을 실시

1) 예비문항에서 제외된 문항들은 18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직업·교육영역에서는 '나는 교육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족·사회적 지지 영역에서는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모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참석하고자 한다', '나는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준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의견이나 감정을 잘 표현한다.', '나는 종종 가족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 '건강영역에서는 '나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스스로 복용한다.', '나는 나의 주요 정신과 증상을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도움을 청한다.', '나는 정신과 약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직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받는다.', '나는 나 자신이나 타인을 공격하고 해치고 싶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한다.', '여가영역에서는 '나는 외출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일상생활자원관리영역에서는 '나는 가끔 혼자서 혹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당이나 커피숍 등을 이용한다.', 삶의 적극적 대처영역에서는 '나는 나 스스로를 믿고 사랑한다.', '나는 항상 나 스스로나 타인앞에서 겸손해지려고 한다.', '나는 어디서든 집단의 결정을 중요시하고 결정된 내용을 잘 따른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믿음이 도움이 된다.', 이었다.

한 결과, KMO값은 .954이었고, 요인분석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chi^2=11562.507, p<.000$),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항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총 7개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56.444%이었으며 모든 항목이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의 기준에 적합하여 삭제되는 문항이 없어 최종 4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와 포커스그룹면접 등을 바탕으로 하여 6개의 영역과 58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7개 영역의 40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리하여, 요인 1은 '직업'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10문항이 해당되었고, 요인 2는 '가족· 사회적 지지'요인으로 6문항, 요인 3은 '낙관성'요인으로 5문항, 요인 4는 '자원활용'요인으로 4문항, 요인 5는 '대처행동'요인으로 5문항, 요인 6은 '여가'로 5문항, 요인 7은 '건강'으로 5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1	2	3	4	5
1.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다	.859				
3. 나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전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816				
2. 나는 일단 일을 하기로 하면 약속한 기간동안 끝까지 할 수 있다	.799				
6. 나의 삶에서 취업은 중요한 일이다	.783				
5. 나는 일을 시작하면 출퇴근시간을 잘 지킬 수 있다	.761				
4. 나는 일을 하는 중에 다소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다	.671				
9. 나는 어디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다	.600				
10.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관심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취득하고자 한다	.576				
8. 나는 어디에서든 대부분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516				
11. 나는 하고 싶은 일(직업)이 있으며, 이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462				
22.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816				
16. 나는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	.786				
17.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다	.758				
20. 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다	.687				
23. 나의 가족은 늘 나에게 관심이 많다	.671				
18. 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한다	.583				

45. 나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846		
46.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822		
47. 나는 정신건강이나 삶의 모든 면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좋게 변화될 것이다			.743		
48. 나는 나 스스로의 장점 및 단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672		
49. 나는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한가지 이상 있으며 살아가면서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			.471		
40. 나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 쇼핑센터 등을 잘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798		
39. 나는 혼자서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을 이용한다			.761		
38. 나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잘 이용한다			.640		
41. 나는 필요한 경우에 지역사회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도서관, 화관 등)을 이용한다			.563		
54. 나의 삶에서 직접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720	
52. 나에게 비록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625	
55. 나의 삶의 중요한 일들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579	
50. 나는 삶의 목적과 꿈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455	
53. 나는 돈을 모이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면 저축하고자 한다				.428	
고유값	15.730	2.750	2.070	1.440	1.328
분산(%)	38.263	5.856	4.070	2.546	2.146
누적분산(%)	38.263	44.119	48.189	50.735	52.81

요인 1: 직업 요인 2: 가족·사회적 지지, 요인 3: 낙관성
 요인 4: 자원활용 요인 5: 대처행동

	요인6	요인7
34. 나는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829	
35. 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낸다	.566	
37. 나는 나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즐겁게 보낸다	.516	
44. 나는 산책, 운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자연환경(공원, 하천, 강, 산 등)을 즐기고 활용하려고 한다	.494	
43. 나는 원하는 경우에 여러 문화시설(영화극장, 공연장, 문화센터 등)을 이용한다	.475	
29. 나는 하루세끼를 꼭 챙겨먹는다	.779	
28. 나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	.720	
26. 나는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운동, 규칙적 식사, 식이요법 등)	.438	
30. 나는 위생관리를 잘 하며 청결하고자 노력한다	.435	
31. 나는 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다	.410	
고유값	1.185	1.111
분산(%)	1.850	1.713
누적분산(%)	54.731	56.444

요인 6: 여가 요인 7: 건강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7요인 구조에 대해서 [표 5]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탐색적 요인에서 확인된 7요인 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들의 경로계수도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적재치도 0.5이상으로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표 6]과 같이 모형의 적합도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카이자승치를 자유도로 나눈 수치(CMIN/df)는 1.97로써 2이하일 때 모형수용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문항	Estimate	S.E.	C.R	p	표준화된 회귀계수
요인1	1	1.000				.750
	3	1.086	.058	18.591	***	.822
	2	1.026	.060	17.103	***	.763
	6	.960	.056	17.100	***	.763
	5	.880	.056	15.716	***	.708
	4	.977	.058	16.985	***	.759
	9	.961	.055	17.500	***	.779
	10	.764	.049	15.622	***	.704
	8	.923	.064	14.369	***	.652
	11	.917	.064	14.337	***	.651
	22	1.000				.768
요인2	16	.795	.051	15.628	***	.717
	17	.852	.058	14.567	***	.673
	20	.937	.056	16.725	***	.762
	23	.905	.059	15.242	***	.701
	18	.932	.058	15.951	***	.730
요인3	45	1.000				.712
	46	1.077	.073	14.676	***	.739
	47	1.046	.070	14.990	***	.756
	48	.860	.071	12.138	***	.604
	49	.859	.073	11.782	***	.586
요인4	40	1.000				.663
	39	.995	.071	14.038	***	.771
	38	1.031	.075	13.830	***	.756
	41	.966	.071	13.596	***	.740
요인5	54	1.000				.618
	52	1.279	.091	14.003	***	.810
	55	1.199	.091	13.202	***	.745
	50	1.330	.095	13.956	***	.806
	53	1.125	.094	11.961	***	.653
요인6	34	1.000				.604
	35	.936	.086	10.870	***	.610
	37	.996	.084	11.838	***	.685
	44	.931	.076	12.279	***	.722
	43	1.047	.081	12.904	***	.780
요인7	29	1.000				.726
	28	1.077	.060	18.060	***	.838
	26	1.082	.060	18.053	***	.838
	30	1.036	.058	17.764	***	.825
	31	1.048	.062	16.792	***	.781

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는데[27], 이러한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비밀관성 등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모델적합도 평가기준으로 고려되는 CFI도 .94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도 .94, 절대적합도지수인 RMSEA도 .058 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모형적합도

구분	모델적합도 기준 [20]	결과	모델적합성
CMIN/DF	2이하	1.97	적합
IFI	0.9이상	.94	적합
CFI	0.9이상	.94	적합
RMSEA	0.05이하: 좋다 0.05-0.1이하: 수용가능	.058	적합

(4)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강점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알파계수방법을 활용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5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1이 .871, 요인 2가 .897, 요인 3이 .824, 요인 4가 .824, 요인 5가 .850, 요인 6이 .812, 요인 7이 .811이었다.

표 7. 신뢰도

	항목 수	Crobach의 알파		항목 수	Crobach의 알파
전체	40	.959	요인4	4	.824
요인1	10	.871	요인5	5	.850
요인2	6	.897	요인6	5	.812
요인3	5	.824	요인7	5	.811

(5)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어판 정신장애이용 강점척도의 공인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본 연구의 척도와 송경욱(2010)이 외국의 정신건강회복척도(Mental Health Recovery Measure: MHRM)를 국내의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정신건강회복척도’(MHRM-K)[28]와 한국어판 강점활용척도[29]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보았다. 먼저, 한국어판 정신건강회복척도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정신과적 증상이 있더라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강조한 척도이므로 본 연구의 강점척도

와 기본 관점과 내용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여 선택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는 끈경극복, 자기역량강화, 배움과 자기재정의, 기본적 기능, 전반적 생활만족, 새로운 잠재력, 영성, 옹호/충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내용이 본 연구의 척도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표 8]와 같이 $r=.750$ ($p<.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박부금 등(2012)의 연구에서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한 강점활용척도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개발한 ‘한국어판 강점활용척도’와의 상관관계도 검증하였다[29]. 한국어판 강점활용척도는 강점활용맥락과 강점활용노력의 하위요소를 바탕으로 14문항 자가척도이다. 분석결과, $r=.892$ ($p<.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MHRM-K척도와 강점활용척도도 .72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정신장애인 회복과 강점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본 연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표 8.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척도	MHRM-K	강점활용척도
본 척도	1	.750**	.892**
MHRM-K	.750**	1	.723**
강점활용척도	.892**	.723**	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인용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검토와 정신장애인의 포커스그룹면접,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 등을 통해서 예비 문항 58문항을 설정하였다. 둘째, 전국의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최종 478명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인용은 7개 하위요인, 총 40문항의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도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척도가 국내의 일반 성인이나 외국의 정신장애인 강점척도와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즉, 외국의 Wallace 등의 연구, Lyons 등(1999)의 연구, Nelson 등(2008) 등에서 개발된 정신장애인용 강점척도들은 약물관리, 치료 서비스의 질, 증상, 충동관리, 우울 및 불안 증상, 반사회성 행동장애, 물질남용문제 등을 정신장애인용 강점척도의 구성요소로써 개발하였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국외 문헌을 토대로 하여, 예비문항에서 건강영역으로 증상 및 약물관리, 전문직이나 치료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시켰었으나 이는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 문항으로는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한국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강점에서 정신과 증상이나 약물관리, 전문직이나 치료서비스 이용보다는 직업,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여가, 건강 등 일상생활영역에서의 강점과 스스로 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성, 적극적으로 자신이 극복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처행동 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Rapp 등(2006)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강점을 제시한 강점이론 및 강점모델의 관점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강점 척도는 국내에서 주로 성격적 강점을 중심으로 개발된 정영은 등의 강점척도[30]와 권석만 등의 강점척도[31]들과도 기본 관점과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의 강점척도와 정신장애인 회복척도, 한국판 강점활용척도는 서로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회복과 강점, 강점활용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둘째, 문헌검토와 포커스그룹면접을 통해서 한국내 정신장애인의 강점은 직업, 가족·사회적 지지, 건강관리, 여가활용, 삶에 대한 대처로 나타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삶에 대한 대처는 낙관성과 대처행동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심리적 차원에서는 낙관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정적인 개념인 낙관성과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처행동은 서로 분리

되는 개념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셋째, 한국 내 정신장애인들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평생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안정적인 직업유지, 자기 자신의 역량개발, 사회적 지지, 건강관리, 미래대비를 위한 인식 갖기, 희망적인 사고,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들었다[32][33]. 본 연구의 척도내용도 이러한 정신장애인 삶의 평생계획의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삶에서 강점을 활용하면서 인생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의 정상화의 이념과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인용은 다양한 정신보건사회복지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의 강점 자가척도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박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필요성과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제5권, 제1호, pp.32-55, 2001.
- [2] 양옥경, 최명민, “사회복지실천모델의 재검토,”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11-142, 2007
- [3] C. A. Rapp and Richard Goscha, *The Strengths Model*, Oxford University, 2006
- [4] 박정임,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관점 사례관리모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5] 하경희,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6] 하경희, 이경아, 이근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강점실천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6권, pp.82-106, 2010.
- [7] C. Brun and R. Rapp, “Strengths-Based Case Management: Individual’s: Individual’s Perspectives on Strengths and the Case Manager Relationship,”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46, No.3, pp.278-288, 2001.
- [8] M. Staudt, M. O. Howard, and B. Drake, “The operationalization,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strengths perspective: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27, No.3, pp.1-21, 2001.
- [9] 이경아, 하경희, 유명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강점사정 적용에 관한 실행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3권, pp.130-166, 2009.
- [10] 이경아, 하경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강점 기반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0, No.2, pp.63-90, 2012.
- [11] R. Parsons and E. O. Cox, *Empowerment-Oriented Social Work with Elderl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4.
- [12] Graybeal, Clay, “Strengths-Based Social Work Assessment: Transforming the Dominant Paradigm,” *Families in Society*, Vol.82, No.3, pp.233-242, 2001.
- [13] C. D. Cowger, “Assessing Client Strengths,” *Social Work*, Vol.39, No.3, pp.262-268, 1994.
- [14] S. McQuaide and J. H. Ehrenreich, “Assessing Client Strengths,” *Families in Society*, Vol.78, No.2, pp.201-212, 1997.
- [15] S. J. Lopez and C. R. Snyder,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 [16] 권자영,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용 개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65, No.3, pp.239-263, 2013.
- [17] W. E. Kisthardt, “The Opportunities and

- Challenges of Strengths-Based, Person-Centered Practice: Purpose, Principles and Applications in a climate of Systems's Integration," *The Strengths Perspective*, pp.171-195, Pearson, 2005.
- [18] C. R. Snyder and S. J. Lopez, "Classifications and measures of human strengths and positive outcomes," In C. R. Snyder & Sj, J, Lopez(Eds) *Positive psychology*, CA: Sage Publications, 2006.
- [19] R. K. Lehner, *The Role of Strengths in Behavioral Healthcare for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NorthWester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4.
- [20] C. M. Hultman, I. M. Wieselgren, and A. Oehman,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social coping and life events in the relapse of schizophrenic pati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Vol.38, pp.3-13, 1997.
- [21] S. Boschi, R. E. Adams, E. J. Bromet, J. E. Lavelle, E. Everett, and N. Galambos, "Coping with psychotic symptoms in the early phases of schizophreni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0, pp.242-252, 2000.
- [22] C. J. Wallace, T. Lecomte, J. Wilde, and R. P. Liberman, "CASIG: A consumer-centered assessment for planning individualized treatment and evaluating program outcomes," *Scizophrenia Research*, Vol.50, pp.105-119, 2001.
- [23] J. Lyons, *Adult Needs and Strengths Assessment: an information integration tool for adults with mental health challenges, (manual)* Winnetka, IL: Buddin Praed Found. 1999.
- [24] C. Nelson and M. Johnson, *Adult need and Strengths Assessment-Abbreviated Referral Version to Specify Psychiatric Care Needed for Incoming Patients, Exploratory Analysis*, Psychological Reports, Vol.102, pp.131-143, 2008.
- [25] V. Bird, M. Leamy, C. Le Boutillier, J. Williams, and M. Slade, *REFOCUS: Promoting recovery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London, England: Rethink, 2011.
- [26] 신경림, *질적연구방법론*, 이대출판부, 2004.
- [27] 정우석, 손일권, *과학적 조사방법*, 서울: 두양사, 2009.
- [28] 송경옥, "한국어판 정신건강회복척도(MHRM-K)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34, pp.154-188, 2010.
- [29] 박부금, 이희경, "강점활용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1, No.3, pp.599-616, 2012.
- [30] 정영은, 이지은, 한우, 최정우, 백경희, 박주연, 민정아, 채정호, "한국인 강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Anxiety and Mood*, Vol.9, No.1, pp.45-53, 2013.
- [31] 권석만, 정지현, *인간의 강점발견하기*, 학지사, 2013.
- [32] 김선주, "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의 컨셉트 맵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 pp.140-151, 2015.
- [33] 심경순,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6, pp.303-316, 2012.

〈부록〉 한국형 강점척도-정신장애인용

5점 리커트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문항	
1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다
2	나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전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3	나는 일단 일을 하기로 하면 약속한 기간동안 끝까지 할 수 있다
4	나의 삶에서 취업은 중요한 일이다
5	나는 일을 시작하면 출퇴근시간을 잘 지킬 수 있다
6	나는 일을 하는 중에 다소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다
7	나는 어디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다
8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관심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취득하고자 한다
9	나는 어디에서든 대부분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10	나는 하고 싶은 일(직업)이 있으며, 이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11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12	나는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
13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다
14	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다
15	나의 가족은 늘 나에게 관심이 많다
16	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한다
17	나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18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19	나는 정신건강이나 삶의 모든 면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좋게 변화될 것이다
20	나는 나 스스로의 장점 및 단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21	나는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한가지 이상 있으며 살아가면서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
22	나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 쇼핑센터 등을 잘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23	나는 혼자서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을 이용한다
24	나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잘 이용한다
25	나는 필요한 경우에 지역사회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도서관, 회관 등)을 이용한다
26	나의 삶에서 직접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27	나에게 비록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28	나의 삶의 중요한 일들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29	나는 삶의 목적과 꿈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30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면 저축하고자 한다
31	나는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32	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낸다
33	나는 나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즐겁게 보낸다
34	나는 산책, 운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자연환경(공원, 하천, 강, 산 등)을 즐기고 활용하려고 한다
35	나는 원하는 경우에 여러 문화시설(영화극장, 공연장, 문화센터 등)을 이용한다
36	나는 하루세끼를 꼭 챙겨먹는다
37	나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
38	나는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운동, 규칙적 식사, 식이요법 등)
39	나는 위생관리를 잘 하며 청결하고자 노력한다
40	나는 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다

저자 소개

박정임(Jung-Im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가족복지